KMU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제8권 2009년 2월

NEWS LETTER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본부관 314호
Tel. 02)910-4448 Fax. 02)910-4249
발행인 김 문 환
발행처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OOKMIN UNIVERSITY CONTER FOR TEACHING&LEARNING

CONTENTS

소장님 인사 1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학습 전략 2
선배에게 듣는 A+ 프레젠테이션 전략

교수 지원 및 교육 4
교수법 관련 교육
사이버 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교수-학습 프로그램(교과과정) 개발 지원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서비스

학습 지원 및 교육 6
학습법 관련 교육
학습클리닉 워크숍
교수-학습 가이드북 개발 지원
마이크로 티칭 촬영 지원
북악 캠퍼스 8기 스터디 그룹

우리는 8기 스터디 그룹입니다!! 8

스터디 그룹 참여 후기 9

학습클리닉 워크숍 참여 후기 13

교수-학습 서비스 안내 16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대학

명 강의로 소문난 미국 명문 대학의 한 교수에게 명 강의의 비결을 물었을 때, 70대 중반의 그 노교수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학생들이 즐겨보는 M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업 소통의 언어를 위해 자주 MTV 채널을 찾았다는 이 노교수의 일화는 지식과 학문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소통되고 전달되어야 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학문적 지식과 연구가 넓고 깊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세계에 묶인 채 학생들에게 소통되지 않는다면, 좋은 연구자일수는 있어도, 좋은 교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높고 넓은 지식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관은 좋은 연구소일 수는 있어도 좋은 대학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임무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믿음이 40여 년 전 미국에서 처음 발족하기 시작한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정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교단에 서게 되는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 강단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한 대학들의 문제제기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교수학습센터가 이제는 대부분의 국내외 대학에 설립되어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도 넉넉지만은 않지만 주어진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교수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모색하실 때나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찾으려고 할 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정보공학기술이 교육환경에 적용되어 e-learning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산출하는 작금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더 높은 교육 효율성과 수월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작업을 도모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를 위해 물론 다양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여러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강 규 한**

교수-학습 전략

선배에게 듣는 A+ 프레젠테이션 전략

문과대학 교육학과 4학년 김 원 화

누구나 "어떻게 하면 PPT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교에 들어와서 난생처음 접해보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잖은 당황을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에 물어봐도 그에 따른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한 기술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있다. 또한 정말 잘 만든 것이라고 하여도 대부분 공개를 꺼려해서 좋은 샘플과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래서 백지상태로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방법을 몇 가지 공개할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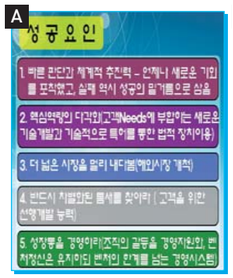
| 첫째, 템플릿에 너무 구애되지 말아라.

많은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템플릿을 어디서 구하느냐', 혹은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다. 템플릿이란 PPT의 전체적인 구조와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PPT의 배경과 대체적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즉 백지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템플릿, 즉 '배경과 구조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비유하자면 몸에도 맞지 않는 분홍 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에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템플릿이 정해지는 것이지, 템플릿에 내용을 끼워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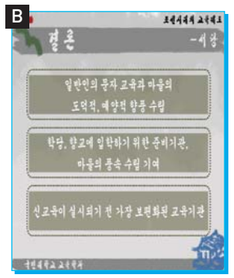
| 둘째,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색감이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정하고 나서 열심히 PPT도 만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엉성해보이고 조잡해보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색감이다. PPT는 그림에 비유하자면 풍경화보다는 포스터와 비슷하다. 포스터는 어렸을때 미술시간때 배웠듯이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강한 인상으로 원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스터가 풍경화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색감에 있다. 포스터는 보통 원색에 가까운 색을 쓰게되며, 3~5가지 색으로 채색이 된다. 그로 인해 강렬하고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PPT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너무 많은 색을 쓰면 집중되지 않고 조잡해보인다. 또한 적당히 색을 썼더라고 색채의 기본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역시나 조잡해보인다. 색채의 기본 원리란 중고등학교 미술시간에 배웠듯이, 보색대비, 한난대비 등의 대비 효과나 중간혼합등의 색의 원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등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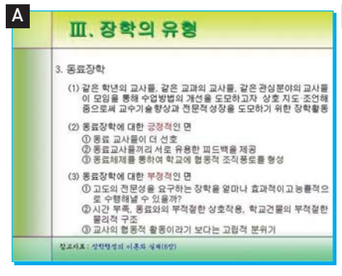
위의 A 는 여러 색깔을 썼지만, 색깔들이 각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제각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비슷한 디자인의 B 는 3가지 색만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명도와 채도가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다. 아무리 PPT의 디자인이 훌륭하고 멋있더라도 색이 어울리지 못하면 그 PPT는 조잡해 보이기 마련이다. 즉 색을 얼마나 잘 매치시키느냐가 멋진 PP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글자를 최대한 줄이고 도해화를 많이 활용하라.

PPT의 슬라이드가 조잡해 보이는 원인은 위에 말한 색깔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글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이 모든 내용이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PT는 프레젠테이션의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돕는 일종의 보조장치 일뿐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배경그림과도 같은 존재이다. 앞에서 색깔, 디자인 이야기가 계속 나온것도 '어떻게 하면 배경그림을 잘 그릴까?' 에 따른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슬라이드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읽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PPT 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종종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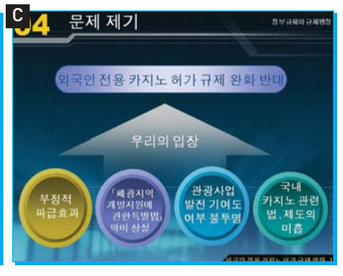
A의 경우는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글자가 들어간 나머지 텍스트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져서 잘 읽히지도 않고, 내용의 정리도 되지 않으며, 무엇을 설명하는지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에 B의 경우는 자칫하면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쓰여질 수도 있었지만, 도해화를 활용하여 굉장히 적은 텍스트를 사용하였지만, 발표자가 발표하고자 하려는 내용의 개요도 파악하기 쉽고 내용의 정리도 잘 되는 편이다. 이 처럼 슬라이드에는 최대한 적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편이 슬라이드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너무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너무 많은 텍스트를 넣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하지만 텍스트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A



B

C



C의 경우 처럼 도해화를 활용하면 깔끔하게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슬라이드 구성은 텍스트를 최대한 줄이고, 적절한 도해화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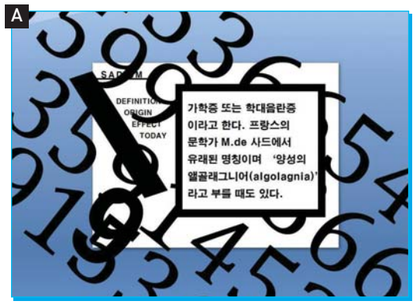
| 넷째, 역시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연습만이 방법이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PPT는 결국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깔끔한 도해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나 보고서용의 PPT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도해화를 활용해서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한번에 길러지지 않는다. 처음에 그림을 그릴때도 여러번 연습을 하듯이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PPT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쉬운 조작으로 굉장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있다. PP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이 한 것들을 보고 연습해보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유명한 말도 있듯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디자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CF 나 여성의류 홈페이지 등을 즐겨봤다. CF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의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독특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진 홈페이지 굉장히 많다. 이러한 웹디자인 등을 보고 디자인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다섯째, PPT를 위한 기타 팁들.

이외에도 PPT를 위한 작은 팁들을 몇가지 소개하면, PPT 말고도 빔프로젝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빔프로젝터는 RGB 프로젝터가 일반적이다. 이 프로젝터는 Red,Green,Blue 3색의 빛을 이용한 프로젝터로 바꿔말하면 이 3가지 색에 민감하다. 또한 실제로 컴퓨터에서 작업할때와 빔프로젝터로 시연했을때의 색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교실의 상황이라든지, 빔의 상태든지 등으로 인해 색깔이 실제보다 명도가 높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로 빔프로젝터의 체크는 필수이다. 그리고 PPT 프로그램은 정해진 면 이외에 더 많은 면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A와 같은 경우이다.

A



위에서 보다시피 정해진(화면에 보이는) 면은 흰색 바탕에 불과한데,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서 그 외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공간을 활용하여 작업을 한 예이다. 즉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면 좀 더 멋진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PT 의 배경은 어두운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빔프로젝터와 교실환경 때문이다. 너무 밝은 배경을 쓰게 되면 밝은 교실환경과 빔프로젝터의 영향으로 눈이 너무 부시다든지,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많은 수업에서 강의식이 아니라, 발표ㅎ토론식 수업을 채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중요한 능력중의 하나도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뽑고 있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로 급부상 한 것이다. 짧고 미숙하지만 이 팁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에 자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KOOKMIN UNIVERSITY

교수 지원 및 교육

01 교수법 관련 교육

교수법 특강 38차 – 왜 수업포트폴리오인가?

- 일 시 : 2008. 09. 26. (금) 12:00–14:00
- 장 소 : 경상관 317호
- 강 사 : 길양숙(강원대 교수, 前 강원대 교수학습개발원장)
- 내 용 : 수업포트폴리오 개발은 왜 필요한가? – 유래, 사용처, 제작방법, 사례

교수법 특강 39차 – 대학 2.0 시대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 일 시 : 2008.10. 22. (수) 16:00–17:30
- 장 소 : 경상관 317호
- 강 사 : 김현수(본교 경영대학 교수)
- 내 용 : 21세기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
  – 다학문적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

02 사이버 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교수법 특강 40차 – 사이버강좌 저작도구 활용 교육 및 가상대학 이용법

- 일 시 : 2008. 11. 12. (수) 14:00–15:50
- 장 소 : 북악관 206호 전산실
- 강 사 : 안현미(자이닉스 마케팅팀 고객지원실), 임선옥(교수학습개발센터 실습조교)
- 내 용 : 1. eStream Presto 4.0 사용 및 활용법
  - 파워포인트, 워드, 아래아한글, 웹페이지, 동영상 등을 이용한 다양한 슬라이드 작성
  - 준비된 슬라이드에 다양한 형태의 판서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진행
  - 프리젠테이션 진행 중 동영상과 슬라이드 실시간 인코딩 및 콘텐츠 생성
  - 녹화된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편집
  - 콘텐츠에 삽입되는 이미지 · 미디어 파일 및 오디오 믹싱 · 더빙과 관련된 총체적 편집

  2. 가상대학 사용 및 활용법

03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들의 능력이 연구(research) 중심에서 교수활동(teaching)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교수전문 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수업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업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 수업활동서 혹은 교수이력서)는 최근 수업활동의 자료를 선택하여 조직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향후 수업과 학습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교수자로서의 전문성을 계발시키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2008년도 2학기 수업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개발 기간 – 2008. 10. 17.(금) ~ 2009. 01. 23.(금) : 총 14주
- 초기 모임 – 2008. 10. 20.(월) ~ 10. 24.(금) : 개별 오리엔테이션
- 중간 모임 – 2008. 12. 09.(화) :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중간 점검
- 종결 모임 – 2009. 01. 19.(월) : 수업 포트폴리오 결과물 제출 및 개선방안 수렴
- 개발 교수

성명소속	대학소속	학부(과)개발	강좌명
김재명	교양과정부	교양	국제분쟁과 내전 따라잡기
남무희	문과대학	국사학과	불교문화와 사찰
박봉순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기초중국어 1
신동혁	국제학부	러시아학과	러시아학 개론
신현규	체육대학	체육학부	중급테니스

성명소속	대학소속	학부(과)개발	강좌명
심인보	자연과학대학	나노전자물리학과	자성재료학
윤성호	자연과학대학	생명나노화학과	무기화학 II
양민화	문과대학	교육학과	교육학개론
이근용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
이수진	문과대학	교육학과	성격이론

※ 수업포트폴리오 개발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4 교수-학습 프로그램(교과과정) 개발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원들의 교수 이론 개발 및 교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교내 교수들의 교수-학습 모델(교과과정)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교수-학습 모델 개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I : '대학 2.0 시대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 개 발 자 : 김현수 (본교 경영학부 교수)
- 개발취지 및 특징
  - 학문이 분화에서 다시 통합으로
    (철학/신학/의학/문학에서 시작되어 분화를 거듭하던 학문이 21세기에 들어 다시 융합과 통합의 길로)
  - 산업과 사회의 요구 변화: 정보화/자동화 등으로 단순직이 감소(최근40년 데이터)하고, 전문직(Expert) 및 융합직(ComplexCommunication)이 증가하면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요구 증대
  - 대학 2.0시대(이어령, 젊음의 탄생, 2008.4) 도래: 개방, 참여, 공유(웹2.0철학)시대가 대학사회에도 도래(모든 지식의 칸막이를 없애고 높이 나는 대학, 대학인 요구)
  - 우리 국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논의 필요함.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II : 'UROP(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y Program)'

- 개 발 자 : 윤성호 (본교 생명나노화학과 교수)
- 개발취지 및 특징
  - 대학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여 진로를 개척
  - 바람직한 장학취지를 살려나가는 특성화 사업의 일환
  - 교육 · 연구 · 창작이 직접 연계되는 학생연구 참가 프로그램 개발
  - UROP 교수지도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

05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서비스

강의 비디오 촬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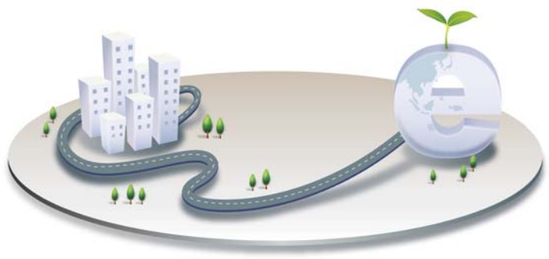
- 과목 및 교수 : 중급 테니스 – 신현규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8. 10. 28. (화) 16:00 – 19:00
  본교 테니스 코트
- 과목 및 교수 : 불교문화와 사찰 – 남무희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8. 11. 04. (화) 11:00 – 11:50
  국제관 A동 104호
- 과목 및 교수 : 러시아학 개론 – 신동혁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8. 11. 06. (목) 10:30 – 11:00
  경상관 109호
- 과목 및 교수 : 무기화학II – 윤성호 교수님
- 일시 및 장소 : 2008. 11. 28. (금) 09:00 – 10:30
  과학관 611호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서비스

- 과목 및 교수 : 자성재료학 – 심인보 교수님
- 촬영일시 및 장소 : 2008. 11. 20. (목) 12:00 – 13:15
  과학관 415호
- 분석일시 및 장소 : 2008. 12. 03. (수) 11:00 – 12:00
  수업행동분석실

KOOKMIN UNIVERSITY

학습 지원 및 교육



01 학습법 관련 교육

학습법특강 19차 – 학습자 유형에 따른 학습전략

- 일 시 : 2008. 10. 31. (금) 14:00–15:4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104호
- 강 사 : 이수진(본교 교육학과 교수)
- 내 용 : • 학습유형에 따른 시간관리, 일정관리
  - 진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 기억전략 및 동기향상

학습법특강 20차 –시험 준비를 위한 조직화 전략

- 일 시 : 2008. 11.14. (금) 14:00–15:4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104호
- 강 사 : 이현경(학습클리닉 전문가, G&T 심리연구소 소장)
- 내 용 : • 읽기를 위한 준비 활동과 핵심 찾기
  - SQ3R을 이용한 읽기 전략
  - 트리다이어그램과 마인드맵을 이용한 조직화 전략
  - 유목화, 위계화, 시각화를 이용한 기억전략

02 학습클리닉 워크숍

학습클리닉 워크숍 3차 –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전략

- 일 시 : 2008.12.30 (화) 11:00–16:00
- 장 소 : 국제관 A동 202호
- 강 사 : 이현경(학습클리닉 전문가, G&T 심리연구소 소장)
- 회기별 주제 : • 1회기(11:00~11:50) 읽기를 위한 준비 활동과 핵심 찾기
  - 2회기(13:00~13:50) 읽기 전략 실습 SQ3R과 실습
  - 3회기(14:00~14:50) 조직화 전략– 트리다이어그램과 마인드맵 실습
  - 4회기(15:00~15:50) 기억전략– 유목화, 위계화, 시각화 실습

03 교수-학습 가이드북 개발 지원

학습법 시리즈 개발 지원 : 학습법 시리즈 5 – 학습 가이드북(가제)

- 개 발 자 : 이수진(본교 교육학과 교수)
- 개발 취지 및 특징
  -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습 가이드북을 개발, 변화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로 양성
  -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학습 전략 모색
  -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예시 제시(워크북 형태의 활동방안 제시)
- 주요 내용
  - 대학에서의 학업의 의미와 성공
  - 학습과정 : 인지적 접근(효과적인 기억법 및 학습전략)
  - 학습자의 태도 : 자기조절학습전략/ 동기이론(학습목표 및 학습동기)
  -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 불안, 강박, 스트레스
  - 학습자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관리
  -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공부전략 : 강의 듣기, 자료 검색과 수집, 글쓰기 전략(리포트 잘쓰기), 발표전략, 시험 잘치기

04 마이크로 티칭 촬영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각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마이크로 티칭 촬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티칭 촬영서비스를 위해 2실의 수업행동분석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업분석실에는 전자교탁, 타블렛 모니터, 천장형 카메라 1대, 화이트스크린, 빔프로젝트, 이동용 카메라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용 메모리로 저장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CD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kookmin.ac.kr)의 교육 프로그램 → 신청서식에서 마이크로 티칭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화(☎910–4248), 내방(국제관 A동 203호), 메일(kctl@kookmin.ac.kr)로 신청.

05 북악 캠퍼스 8기 스터디 그룹

2008–2학기 제 8기 스터디 그룹 활동 : 2008. 09. 16(화) ~ 11. 21.(금) 총 10주

- 모 집 : 2008. 09. 01. (월) ~ 09. 11. (목)
- 오리엔테이션 : 09. 11. (목) 18:00–19:00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종결모임 및 시상식 : 12. 12. (금) 16:00–17:00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수상 그룹

❀ 합리적 탐구상

- 패션의 유혹 – 예진희, 김보배, 안세희
- K마루 – 박효민, 곽소라, 한샘
- AMAPOLA – 김서희, 송연지, 이현정, 정은혜
- 여울 맷돌 – 최종락, 민경인, 손윤기, 장인세, 최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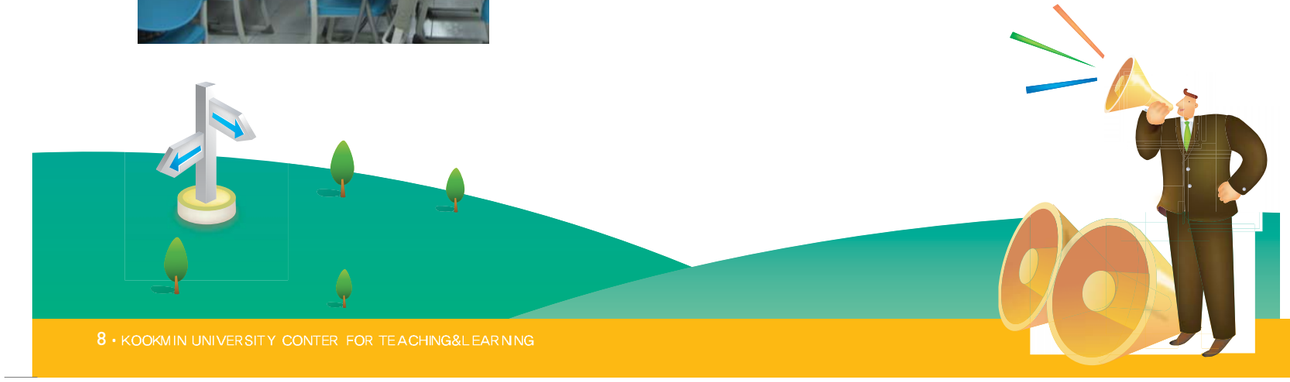
❀ 주도적 학습상

- Adle – 김유나, 김누리, 박선
- VVIP – 이진숙, 박은경, 이영경
- 길라잡이 – 박이나, 왕수민, 김향, 유수진
- Team–AAA – 오준묵, 한수연, 최현주, 이보원
- 마지막 수업 – 이용규, 진호경, 김중옥
- T.B.T. – 이범재, 배준형, 문범수, 황효준, 조민철
- B.H.S. – 장민주, 한송희, 김다정
- DBMS – 강수영, 조영환, 안희재, 이인호, 김순민
- DBMASTER – 위대영, 전성봉, 박혜연, 박지연
- spss 12k! – 어윤식, 박제형, 나상민, 최유창

❀ 도전적 노력상

- 1112 – 김동수, 김석훈, 김민수, 김병하, 김병회
- 새싹 – 신철우, 김일호, 김통일, 박민선, 김미승
- ENTHUSIASM – 노기훈, 김태운, 김판기, 전재인, 한재만
- A^{+} – 방민석, 김보연, 강영은
- 법특스터디 – 최참, 고종섭, 김덕하, 박청수

우리는
8기 스터디 그룹입니다!!



KOOKMIN UNIVERSITY

스터디 그룹 참여 후기

아마폴라 팀장 김 서 희 (교육학과 07)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스터디 그룹을 하다보니, 거의 1년간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조장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운영해 보고나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팀워크' 입니다.

스터디 그룹이라는 것이 개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절대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 팀원이 모두 우수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일차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또 그것을 위해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는 국문과 수업 스터디를 했었는데, 타과 수업이다 보니 생소하고 낯선 문법들과 어휘가 등장하여 혼자 공부하기에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 때 조원들끼리 팀워크를 발휘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모르는 것은 팀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조원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주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는 마음에 다들 열심히 예습, 복습 해오고 질문거리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스터디가 진행되다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과목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이해되고, 수업을 듣는 것도 점점 수월해졌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같이 풀어나간다면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학습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하면서 얻은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스터디를 마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조원들간에 우정이 더 깊어진 것도 스터디그룹을 하면서 얻은 성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스터디그룹은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단 하나의 공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서로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꾸준히 노력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spss12k! 팀장 어 윤 식 (수학과 03)

처음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된 계기는 같은 전공 수업을 듣는 형들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같이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려고 했는데 나이가 제일 어린 관계로 팀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과 특성상 4학년 동안 스터디는 거의 안하고 혼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스터디였습니다. 스터디 시간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여서 그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통계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서로 이해했던 부분들을 나눠가며 진행되었고 책에 있는 실습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업 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간 기말 고사기간에 주어지는 복사카드가 스터디를 충실히 진행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꾸준히 진행하다보니 다들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 이였지만 학기가 끝난 후 모두들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았습니다. 4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스터디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했지만 이제 막 학교를 다니는 1~2학년이라면 매학기 전공스터디를 만들어 진행 한다면 학교에서 받는 지원과 스터디 멤버들 간의 돈독한 우정, 좋은 학점까지 3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 팀장 이 용 규(중어중문학과 02)

지난 1학기 스터디그룹에 이어 이번학기에도 스터디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에게 이번학기는 대학생활의 마지막 학기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스터디활동이었다.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매주 수업을 끝나고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또 스터디 모임 후에는 함께 밥도 먹으면서 선후배간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스터디 그룹의 또 다른 장점은 주기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직전에 하는 벼락치기 공부와는 달리 하나 하나 이해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기억이 오래가고 수업에 대한 열의도 갖을 수 있었다. 선후배들과 좀 더 친해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는 스터디그룹활동에 참여해보길 학우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VVIP 팀장 이 진 숙(정치외교학과 06)

'조직이론'이라는 타과 전공을 수강하게 되면서 걱정이 앞선 터라 같이 듣는 친구들과 고심하던 차에 학교에서 하는 스터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모두 스터디를 해본 적도 없고, 의지가 약해서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잘 안하게 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그냥 지나치게 되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다. 물론 스터디를 하는 8주 동안도 중간고사나 다른 과제 등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던 적도 많고 포기할까 생각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셋 중 누군가 한명은 우리를 다독이며 끌어주어 학습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그룹끼리 스터디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간학습보고서'를 매주 작성하면서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 복습과 정리의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스터디를 하는 시간엔 학습노트에 필기 내용을 정리하며 공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덕분인지 우리 팀원 모두 조직이론 성적은 A+!! 이번에 처음으로 한 스터디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 그룹명을 정할 때 생각했던 대로 vvip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8주였다.

패션의 유혹 팀장 예 진 희(국사학과 04)

1, 2학년,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 마지막 학기를 보낸 최강스터디 그룹 '패션의 유혹' 조입니다.

2009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좋은 성적을 받자고 굳게 마음을 다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잘나지 못한 선배가 그래도 저희가 못했던 아쉬움이 있기에 더 멋진 국민 학도들이 되어달라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횟수로 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활기차게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엘리베이터 옆에 공고된 게시문을 보고 "마지막 학기를 불태워보자."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항상 학기 초마다 학교 게시판 여기저기에 게시되어 있었지만, 건성으로 봐왔던 공지문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학기"이기에 공부와 함께 잘하면 상도 준다는 데 마지막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처음 스터디 조로 선정되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때만 해도 어리버리하게 둘러보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마련한 간식거리에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식을 나눠 먹으며 조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의 스터디 시간을 정했습니다. 첫 주에는 자유 형식으로 주어진 주간학습보고서를 어찌 작성해야 할 바를 몰라 우리의 방식대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찾았습니다. "잘 하셨네요."라는 한 마디에 저희 조원은 함박웃음을 가지고 이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일주일에 2시간이었던 계획이 자연스럽게 수정되어 일주일에 3~4시간 정도를 교양 과목 "패션과 문화"라는 과목에 투자하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교양 과목인데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매주 함께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게 많구나.", "이러이러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등과 같이 스스로 학습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 특성상 사진 자료가 많이 필요했는데, 개념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디자인도서관의 도서들을 활용하여 각자 나눠 맡은 자료를 찾아와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담하여 공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끼리 정했던 벌금제도 한 몫 했습니다. 지각은 1000원, 결석은 2000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였지만,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함께 지내는 일주일동안에 눈칫밥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하여 중간고사를 잘 대비할 수 있었던 저희는 결국, "그룹 스터디"의 유효성을 깨닫고, 하루를 더 할애하여 토의 공부도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마련해 준 복사카드를 이용하여 모의고사를 함께 풀고, 풀이 후, 모르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물어보고 원리를 찾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시작 전에는 단어 시험을 통하여 이전의 공부를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1월 말쯤에는 교수님께 찾아가 면담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교수님께 살갑게 찾아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기에 저희 모두 막상 교수님 앞에만 가면 어려움을 느끼고 매주 면담 계획을 미뤘습니다. 결국은 평소 스터디 하는 교과목(패션과 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조원을 앞세워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했는데, 교수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응해주셨고, 야간 수업이라 늦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약 1시간 정도를 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신 부분이 크게 와 닿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양 과목이었지만 진심으로 학생을 생각해주시며 말씀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저희는 감동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경써주신 것에 부응하는 제자가 되고자 남은 기말 고사를 더욱 잘 준비하자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월, 한 해가 끝나감과 동시에 한 학기의 스터디 조들을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비된 다과를 함께 나누며, 다른 조들의 스터디 활동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매주 수업이 휴강되어 오지 않는 날에도 스터디에 100% 출석하며 서로 책임을 다했기에 "합리적 스터디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깔끔하게 도표로 정리했기 때문에 합리적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저희끼리 결론 내리고,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수상 당일 저희 과목의 시험이 있어 상장을 넣은 파일을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교수님께서 지나가다 보시고서는 물어보셨습니다. 우연으로 상장을 발견하신 것과 내심 뿌듯함으로 얼굴이 발갛게 되어 저희의 공부했던 내용과 함께 수상 사실을 말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시험을 잘 쳐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기말 고사가 예상 질문보다 어려웠는데, 평소 함께 했던 공부가 효과를 내었기 때문인지, 교수님께서 한 학기동안 저희의 노력을 봐주셨기 때문인지 만족할 만한 결과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마지막 학교생활을 뿌듯하게 보내는 데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크게 영향을 끼쳤기에 1, 2학년에게 꼭 추천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 글이 길어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서로 동기를 유발하고 격려해 가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스터디를 하면서 조원들끼리 함께 나눴던 대화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조금 더 일찍 시도해볼걸. 1, 2학년 때부터 했으면 더 좋았겠다."였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저희처럼 학생들의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내학습개발센터를 비롯하여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교내 생활을 즐기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 경기가 어렵지만,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그룹 스터디와 함께 하면서 장학금 타세요~ 이제 졸업생이 되어 우리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저희도 지금은 각자의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취업스터디를 하며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합시다!!

스터디 그룹 참여 후기

여울맞돌 팀장 최 종 락 (기계자동차공학부 05)

처음 벽에 붙은 포스터에 '스터디 그룹' 이라는 문구를 보고 도전하게 되었다. 제대 후 바로 복학한 나와 내 친구들은 수업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어보자는 생각으로 스터디 그룹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터디그룹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어 원서와 영어로 수업하는 방식의 수업을 서로 맡아 모르는 부분, 부분 마다 친구들이 서로 해결해 주었고, 또 발표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들도 적극적이 되었다. 또한, 시간을 정해 놓고 서로 약속으로 스터디를 실시했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시험기간에는 따로 정리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주간학습 보고서로 정리 해 두었기 때문에 시험공부에 수월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그룹에 가장 좋은 점은 '재미' 이다. 공부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러지 못한다. 하지만 스터디 그룹은 '재미'가 있다.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는 유대감 속에 공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스터디 그룹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Adle 팀장 김 유 나 (언론정보학부 07)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 1학기, 2학기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언론정보학부의 애들(Adle)입니다. 저희는, 각각 1학기에는 〈광고기획1이론〉 수업을, 2학기에는 〈대중문화론〉을 스터디 과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스터디그룹 시스템이 존재함에도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1학년 1학기만 해도,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스터디 그룹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에 학부기초과목인 〈대학생활의 이해〉를 들으며, 저희 언론정보학부의 교수님이신 김도연 교수님께서 스터디 그룹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막상 마음에 맞는 동기를 찾기도 힘들었고,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마음이 앞서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그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선 알게 되었죠. 2학년이 들어 마음이 맞는 동기끼리 모여 〈광고기획1이론〉 수업을 선정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제품을 선정해 광고기획부터 광고 크리에이티브 시안까지 만들어야하는 광범위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팀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팀원들끼리 따로 시간을 내지 말고 스터디 시간을 이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광고기획 수업은 주2회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저희는 각 각 화요일, 목요일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따로 약속을 잡을 경우 각자 스케줄 때문에 모이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죠. 물론 2학기에 진행한 대중문화론 수업의 스터디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기본적으로 1학기, 2학기동안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각 각 광고학/언론학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 특성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조절해가는 센스도 필요했죠. 저희는 우선 4명이서 각자 수업시간에 한 필기를 모두 조합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은 똑같더라도 4명이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필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왜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필기를 정리하는 사람은, 팀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료나 사례를 첨부해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팀원들이 찾은 예시나, 사례들을 시험에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책을 읽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방식이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한 토론방식의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딱딱하게 흘러갈 수 있는 스터디가 즐겁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학문이란 현실과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것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 2일마다 스터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배운 내용이 정리가 되고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는 따로 시간을 많이 내어 공부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무엇인지, 또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배울 수 있었달 까요. 사실 스터디그룹 초기에는 스터디 그 자체보다는 후에 있을 시상(?)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통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적으로 팀원들의 의지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만남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팀원들끼리 "우리 지금 무엇인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과가 괜찮을수록 더욱 박차를 가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우리 팀원들에게 가져다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쭉 교수학습센터의 도움을 빌릴 계획입니다.

KOOKMIN UNIVERSITY

학습클리닉 워크숍 참여 후기

박 정 은 (식품영양학과 20072128)

투자한 것에 비해 많이 얻는 것을 소위 "효율적"이라고 한다. 평소 효율성 Zero의 공부 방법 때문에 학업성취에 큰 어려움을 겪던 나에게≪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전략≫이란 주제의 이번 워크숍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도 단순히 주입식의강의가 아니라 조를 짜서 주제와 관련한 과제를 직접 풀어나가면서 조직화의 개념을 배우고, 조직화 기술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이라 기억에 오래 남았다. 이번 학습클리닉 워크숍은 비단 학점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에 구속받는 현대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플을 하면서 조원들과 친해져서 수업 관련한 내용 외에도 많은 얘기를 했던 것도 좋았다. 다음에 또 이런 워크숍이 열린다면 정말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김 해 진 (국어국문학과 20040014)

학기 중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클리닉 워크숍 공고를 볼 때 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수업시간과 맞지 않아 기회를 놓치던 중 방학 중에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메일을 받고 이 때다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방학, 이제와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도 싶었지만, 지금까지 나의 학습방법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기 위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았다.

처음 조직화 전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게 뭘까 싶었지만, 모두들 돌아가며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고 이 단어들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그룹을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조직화 전략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경우 필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트리다이어그램인데, 이 역시도 조직화 전략의 하나였다. 그래서 인지 이번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보다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법인지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글의 종류나 글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글을 읽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조직화 방법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우리가 조직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를 잘 하는 것이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화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학우들이 들으면 좋은 특강일 것 같다.

김 해 진 (생명나노화학과 20042674)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이든, 음악이든, 컴퓨터든 이런 류의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시작하지만 유독 공부법 혹은 학습법에서만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열심히'라는 단어 하나가 절대적으로 모든 시험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워크숍을 듣기전까지 '열심히'가 학습법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처음 학교 홈페이지에서 워크숍에 대한 홍보물을 접했을 땐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통하는 학습법이 있을까 싶은 호기심 반,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싶다는 마음 반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진행된 조직화 전략이라는 학습법은 이런 제 신청 의도를 일정부분이상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학문이든 제시되었던 글의 구조 6가지 안에 이루어지는 것과 이 구조에 따라 조직화 방법을 달리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강사님의 말씀과 주어진 활동들을 통해서 익히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하게 공부했는지를 깨닫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수고해주신 이현경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스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공시험 뿐만아니라 앞으로 접하게 되는 시험에 그날 익힌 조직화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워크숍을 들을 기회가 학교내에서 자주 있었으면하는 작은 바램을 더해봅니다.

박 재 우(비즈니스 IT학부 20081209)

"죽자고 공부했는데 맨날 노는 저 자식보다 뒤지다니..."

그렇다. 나의 친구는 언제나 열심히 놀고도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 맨날 도서실에서만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사건이었다. 공부하는 양은 많았는데 왜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이 워크숍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나의 학습방식에 문제점을 알아내고 공부 방식을 좀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바꾸고 싶어서였다. 12월 30일 국제관에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험 전에 이미 한번 참여한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난 정말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소수의 인원으로 조를 짜서 실습위주로 행해진다고 했기에 더 기대가 컸다. 학생들이 모이고 조가 편성이 되었다. 저번에 이미 안면이 있던 이 현경 선생님이 소개를 하시고 우리는 바로 조직화 전략을 실습을 하게 되었다. "조직화가 뭘까요? 생각나는 단어를 한 명씩 발표해보세요." 조직화에 대해 자신이 생각나는 단어를 한 명씩 발표를 하고 그 단어들을 모아 조직화하는 즉흥적인 실습이었다. 난 비슷하거나 같은 성격의 단어들끼리 분류를 했고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나갔다. 의외로 쉬웠다. 우리가 실습한 결과물을 칠판에 붙였고 다른 조들이 붙여놓은 것들을 비교하며 선생님의 평을 들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조직화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조직화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했을까?"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조원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다들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워크숍을 참가했다고 한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오후시간 순서를 시작했다. 잘 정리된 프린트물을 통해 우리는 글읽을 때 효율적인 방법과 글을 통해 어떻게 조직화해 나아갈 것인지 실습을 진행해 나갔다. 예문을 통해 글을 효율적으로 세분화하고 조직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들이 조직화한 실습내용을 칠판에 붙어 다른 조들과 비교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면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화 전략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사실 저번 시험보기 전의 조직화 전략 워크숍을 듣고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터라 나에겐 이번 시간이 더 뜨겁고 실질적으로 다가온 좋은 시간이었다. 이젠 바보같이 비효율적인 공부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워크숍을 마쳤다.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시간을 마련해준 국민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한 다 진(러시아학과 20060690)

나는 꽤 열심히 공부한다. 강의내용을 토시하나 빼먹지 않고 자유노트에 받아 적은 다음, 집에서 필기내용을 구분, 정리하고 전용 노트에 다시 옮겨 적는다. 시험기간에는 해당 강의내용과 관련된 다른 서적의 내용을 수집하여 광범위한 범위를 설정하고 시험에 준비한다. 그러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몰려오는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학습법에서 발견되는 비효율적인 점을 파악하고 학습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워크숍의 문을 두드렸다.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많은 공부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주를 이뤘다. 다양한 읽기전략과 다양한 노트 정리방식 그리고 유목화, 위계화, 시각화를 활용한 기억전략 등이 소개됐다. 학습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내 기대와는 달리 워크숍은 학생들 간 토론과 문제해결, 발표 형식의 팀별활동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워크숍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대한 강의 분량에 비해 시간이 적어 미쳐 다루지 못한 후반부 주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워크숍 막바지에 나눠줬던 '애니어그램을 통한 진로설계'라는 자료는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핵심보다는 변두리에 치중해 공부해왔던 나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습방향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유 우 진(국사학과 20020433)

'학습의 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국사학과 02학번 유우진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학습이라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학습이외의 여가생활과 휴식 등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 모두는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학습의 효율성은 인생의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00이라는 학습의 양을 달성하기 위해 10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여 5시간만에 학습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는 보다 학습의 부담으로부터 여유로워 질 것입니다. 쉬운 예로 레포트를 작성할 때 비슷한 수준의 보고서를 10시간 만에 작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5시간 만에 작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유익한 활동 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들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조직하고 기억해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학습클리닉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특강에 참석한 결과 평소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우수한 학점을 받아보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의 저의 경험을 통해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내기, 자신의 학습방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 등 학습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교육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노 혜 정(공법학 20055087)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하는 특강을 듣게 된 후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학습클리닉 워크숍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전략〉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워크숍은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조를 나누어 조별수업방식으로 1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다. 솔직히 특강만 들어봤던 나는 조금 당황을 했다. 이번에도 각자 수업을 듣는 줄로만 알았는데, 조원끼리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발표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이 들었다. 게다가 조는 임의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조라고해도 조원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었다. 낯을 가리고 내성적인 성격인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다. 하지만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점차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고, 발표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워크숍 내용을 듣고 실습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직화전략에 대한 이해가 쉬웠고, 강사님의 강의만 들을 때보다 더욱 재미있었다. 워크숍을 마치고 나는 학습효율성을 높여주는 조직화전략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있었던 좋은 계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업안내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http://ctl.kookmin.ac.kr

01 연구 및 개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 센터 대외 협력체제 구축
- 교과목 및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교과목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02 교수 지원 및 교육

- 일반 교수법 및 매체활용 교육
-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학과(부)별 세미나/워크숍 지원
- 신임교수를 위한 교수법 자료 제작 및 특강
- 교수매체 활용 교육(사이버강좌 저작도구 및 프레젠테이션 활용 교육)
-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 수업포트폴리오 개발지원

03 연구 및 개발

- 학습법 관련 교육
-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 Study Group 활동 지원
- 학습검사 및 상담
- 학습클리닉 워크숍
- 마이크로티칭 촬영 서비스

04 이러닝 지원 및 교육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교육매체 개발
- 교수매체 제작 지원
- 교수매체 활용 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
- 사이버 강좌 개발 및 평가
- 사이버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03 정보제공

- 교과과정 /교재개발 관련 책자 제작 및 배포
- 교수-학습 가이드북, 영어 학습법, 대학생활 안내서 발간
- 학습노트 제작 및 배포
- 뉴스레터 및 안내 브로슈어 발간
- 교수법 관련 자료 대여
- 우수 강의 사례 영상 자료 대여

이용주소 및 전화

주소 :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국제교육관 A동 203호)
Homepage : http://ctl.kookmin.ac.kr E-mail address : kctl@kookmin.ac.kr
전화 : (02)910-4248, 4448 Fax : (02)910-4249